

기후위기 시대, 보험계리사 역할

남 상 욱

한국보험학회 학회장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십여 년 전, 굴지의 미국 보험사 Farmers Insurance와 State Farm이 주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적이 있다.

먼저 Farmers Insurance의 소송은 시카고를 비롯해 일리노이주를 대상으로 한 총 9건의 집단소송이었다. 사유는 이들 주정부가 기온 상승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하수도, 배수로 정비 등을 게을리해 수백 건의 주택 침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급증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 소송은 법원의 본안 판결 전에 보험사가 소를 취하해 법원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보험사가 기후 재난 손실 발생과 그 책임 소재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어 State Farm의 소송 역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샌프란시스코시의 공공시설 관리와 배수 체계를 문제 삼은 것이었다. 결과는 샌프란시스코시 조례로 합의금 11만 5천 달러를 지급 승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금액 자체는 비록 크지 않지만, 그 상징성은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두 소송 사례는 기후 리스크를 알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주정부에 책임을 묻고, 실제 발생한 재난 손실에 대해 보험사가 일부 비용을 회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 재난이 사회 전체의 책임 배분 문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에 그렇다.

지구고열화(Global boiling)로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이상 재해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매해 급증하면서 보험사의 손실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 우리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발생 손실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데 보험, 보험업의 역할이 집중되어 온 터다. 그러나 작금의 가파른 기후변화는 모든 상황을 바꿔 놓고 있다. 극심한 폭염, 집중호우, 가뭄, 거대 산불과 같은 극한 현상이 빈발하는 와중에 그 손실 규모와 발생 빈도는 과거 경험치를 벗어난 지 오래다.

더욱이 법원에서 조차 재난과 손실의 인과관계에 대해 더 과학적인 근거, 좀 더 정량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홍수 발생이 얼마나 커졌는지, 특정 강우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이례적으로 내리는지, 배수시설 부족 등이 손실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 설명을 듣고자 하는 기류다.

이에 따라 보험, 재난, 손실, 책임 등을 둘러싼 논쟁 시 데이터와 모델에 기초한 논리로 변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험계리적 사고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보험업계는 미래 재난 발생 수준을 사전에 측정하고 분석, 비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실제 이들 업계는 강수량, 기온, 풍속과 같은 기상요소뿐 아니라 노출도, 취약성, 회복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후 리스크 지수(climate risk index) 등을 자체 개발해 언더라이팅, 재보험, 자본 관리 외에도 국가 기후적응 정책 수립까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가 직면할 과제와 풀어야 할 숙제 또한 막중해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리스크 해석자이자 기후 리스크 비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사회적 설계자로서의 보험계리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단순히 비가 얼마나 왔는가보다 해당 지역의 기후 리스크가 얼마나 증가했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는지 또 충분한 대비는 이루어졌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장기간의 기후 데이터와 정교한 계량 모형을 통해 객관적인 리스크 지표 생성이 필요할진대 이는 결국 보험계리사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다 함께 힘을 모아 보험 부채 평가, 보험료 산출 숙련가를 넘어 기후 리스크 등을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번역해 주는 전문가로서 보험계리사의 격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험계리사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모쪼록 보험계리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